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애신(愛信)그룹홈 _ 김금옥 목사

애신(愛信)그룹홈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쉼터로 시작하여 2007년부터 13세부터 19세까지 여자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을 운영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저희 그룹홈에 매월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여러모로 저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참 좋아집니다. 타 교회와는 달리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와 복지를 위해 지원하며 정신 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백억씩을 드려서 교회를 짓는 지금의 세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귀한 길을 가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며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국내외의 구석구석의 여러 분야에 선교를 하는 것은 한 교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단에서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전체 한국교회에 멘토교회이며 모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에게도 기독교도 이런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좋은 모델교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2011년에 광림비전랜드에서 열린 후원교회(도시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군경, 기관선교) 목회자 초청 수련회에 다녀와서 주님의교회의 저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철저히 준비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모습은 매우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그 행사가 좋았고, 감사했고 청소년 그룹홈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주 귀한 쉼과 영성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이렇게 섬기며 헌신봉사를 직접 몸으로 손수들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니 저희들 커다란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시는 주님의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여 이 땅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는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사역을 위한 후원의 날

청년부에서는 7월 1일(주일) 1층 로비와 김마리아화관 입구에서 청년부 여름사역을 위한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car-window wash(창문 세차), 발마사지, 아이스티 무료 제공, 여름사역 티셔츠 판매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후원의 날 행사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청년부 여름사역에 대해 알리고 성도님들께 기도로 후원해주시길 요청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청년부 여름사역은 수련회(7.16-18, 설곡산 다일공동체), 국내선교(8.1-4, 강원도 영월), 해외선교(7.8-13, 베트남 2팀 8.12-17) 등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지체들은 모두가 여름사역에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기로 다짐하였는데, 주님의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 청년부 여름사역에 함께 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2 사랑나무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여행” (시편 104:24)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과 28일에 사랑나무실에서 예배문화와 생활문화, 놀이문화 예술문화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나무 아이들과 함께 샌드위치와 과일 빙수와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같이 먹고 주제 활동을 통해 문화여행을 떠나



만들기와 그리기와 더불어 작은 운동회로 서로 함께 몸을 부딪으며 키자니아(롯데월드) 야외 놀이장을 통해 문화체험도 하며 28일(토) 오후에는 중앙정원에 마련된 간이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사랑나무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나무 아이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사역팀장 전체 모임



2012년 사역박람회를 위한 사역팀장 전체 모임이 7월 1일 (일) 3층 밀알실에서 많은 사역팀장이 참석하여 9월 첫 주일부터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열리는 사역박람회 준비를 위한 모임으로 열렸다. 은사사역팀에서는 사역팀장들은 사역박람회를 통해 각 사역팀별 고유한 활동을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사역원들을 모집을 홍보하기 위한 팀별 사역 매뉴얼을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부탁 하였다. 2012년 사역박람회는 각 분과 위원회팀별로 8개조로 나누어 8주동안 진행된다.

안수집사회

안수집사회가 2012년 신임 안수집사 축하 모임으로 7월 1일 오후 4시에 지하식당에서 열렸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신임 안수집사에게 권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며 안수집사회는 친목단체가 아닌 교회의 하나의 귀한 조직으로 교회의 친목회를 이상의 교회 중추적인 사역을 담당해 달라하시며 안수 집사 한분한분들이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 교회의 많은 일 부탁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보다 앞서지 말기를 부탁하였다. 주일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90여분의 안수집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새 식구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교회요람 배부

2012년 요람을 7월 1일부터 배부합니다. 2012년 요람은 제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전교회 직분표기와 관련하여 여러 회의를 거쳐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기존의 요람은 전(前)교회 직분자들에게 대한 직분표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더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번 요람에서는 전(前)교회 직분자들의 직분을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前)교회직분자들에게 대한 처우는 2013년 정책당회에서 거론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교우님들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_ 왕상 19 : 12

통 권 _ 제 306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7월 8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하나님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

_ 주방부, 밥상공동체 섬기는 숨은 손길

주님의교회의 곳곳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는 말씀을 따라,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섬김의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이 숨은 청지기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그네 번째, 매주 맛있는 국수를 차리는 ‘주방부’ 편입니다. _ 편집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라

교회는 예배공동체이자 밥상공동체이다. 예배를 통해 영혼을 채우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는 말씀처럼, 또한 우리는 밥상을 통해 주님을 우리 몸으로 영접한다. 주님의교회의 대표적인 밥상공동체는 식당이고, 조용한 가운데 섬기는 주방부가 그곳에서 매 주일 따뜻한 국수를 준비한다. 주님의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이라도 이 소문난 국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지난 7월 1일, 주일 아침 6시 40분, 식당 배식대 앞 공간에 고무 앞치마를 두른 스무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작은 케이크를 앞에 놓고 둘러섰다. 주방부의 1부 봉사자, ‘새벽조’이다. 새벽조는 매주일 아침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날은 좀 특별했다. 주방부장의 이취임식 예배였

다. “처음엔 이 어려운 일을 어찌 감당할까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던 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다음 날부터 힘든 줄 모르고 해낼 수 있었지요.” 지난 6개월 동안 주방부를 맡았던 김선례 권사가 그동안의 감회를 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찬양을 불렀다. 이날의 이취임식은 김 권사가 후임인 최정윤 권사에게 공간 열쇠를 전달하고 케이크를 자르면서 소박하게 끝났다.

주일 새벽 4시 30분, 주방문이 열린다

가장 일찍 들어서는 이는 철순의 장도수 집사다. 지난 주일 오후에 깨끗이 행구어 말리고,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용유를 발라놓은 대형 솔의 뚜껑을 연다. 이 솔으로 국수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식용유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솔을 씻고, 물을 가득 채우는 사이에 주방부의

‘새벽조’ 1부 봉사자들이 도착한다. 새벽조가 하는 일 가운데 핵심은 그날 하루에 사용할 국물을 만드는 일이다. YMCA 시절부터 어언 이십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님의교회의 명물, 국수의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다시마, 무, 멸치, 대파, 양파, 청양고추, 생강, 마늘, 후추, 그리고 깊고 구수한 맛을 내는 황태머리. 이 재료들을 넣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이상을 푹 끓여야 국물의 깊은 맛이 제대로 우러난다. 국물을 낸 다시마와 무는 양념을 해서 국수의 꾸미로도 올린다. 식재료는 모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것을 엄선한다. 다시마는 완도에서, 멸치는 여수에서 올라오고, 소금은 신안 천일염을 묵혀서 간수를 빼고 쓴다. 국수는 한 달에 보통 70상자가 쓰인다. 매주 월요일에 주문을 하면, 금요일까지는 갖가지 재료가 교회에 도착한다. 토요일 새벽기도를 마치면, 20년이나 이 사역을 해온 김화진

권사와 전은숙, 노봉옥 권사가 주방으로 내려와 전날 도착한 야채를 다듬어 밀 준비를 해놓는다. 7월 1일 현재, 주방부원은 주방부장 외에 ‘새벽조’인 1부에 27명, 2부에 24명, 3부에 22명이다. 그중에는 이십 년 이상 봉사한 성도도 있고, 부부, 모자가 함께 봉사하는 이들도 있다. 새벽조는 국물을 준비하고 1부 예배 참석자들을 맞는다. 2부는 대략 3부 예배 시작 때까지를, 3부는 그 이후 마감 때까지를 담당한다.

한 주일에 국수 3,000명 분, 곁들이는 김치는 210kg

국수 삶고 건져 올려 찬물로 헹구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뿐더러, 끓고 있는 물을 계속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일은 남자 성도들이 한다. 국물을 내고, 뜨거운 국물을 옮기고, 그릇에 국물을 붓는 일도 남자 성도의 몫이다. 여성 성도들은 배식 쪽을 담당한다. 섬세한 여성 성도들의 손으로, 적정량의 국수와 다시마 고명이 그릇에 담긴다. 거기에 오래 숙련된 감각을 지닌 양념조에서 무 고명을 얹고, 따로 만든 양념장을 더하면 국수의 간이 잘 맞는다. 한 주일에 준비되는 국수는 3,000 그릇이 넘는다. 많을 때는 3,200 그릇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수에 곁들이는 김치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하남시의 한 업체에서 보내오는데, 한 주일에 210~220kg이나 소비된다. 국수 국물의 좀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연구도 계속된다. 멸치를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찬물보다 끓는 물에 넣는 것이 더 좋은 맛을 낸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국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비법은 따로 있다

식당이 가장 혼잡한 때는 3부 예배를 마친 후이다. 이 때엔 국수를 기다리는 줄이 식당 앞 복도를 돌아

_ 2면에 계속

주간 목회력

<2012년 유학생을 위한 특별세례식>
-교육 : 7.8(주일) / 세례 : 7.15(주일)
<킹덤비전 어린이 영어캠프 신청>
-7.8,15(2주간) / 1층 로비 (초2~6학년)

<중등부 어와나트랙 일일캠프>
-7.8,15(2주간) 1~3부 예배후
-1층 교회 앞마당
-아이스티, 레몬티 판매

<정기당회>
-7.8(주일) 오후3:30 / 대회의실
<2/4분기 정기제직회>
-7.18(수) / 수요일예배후



2012 주님의교회 부서별 여름 행사 일정

_ 1면에 이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주방에서도 가장 숨 가쁘게 손이 움직인다. 20여 평의 좁은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국물을 계속 끓이고, 옮기고, 국수를 삶고, 행군다. 국물의 양과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지 않으면 국물 맛이 달라지고, 적당히 익은 국수를 꺼내어 재빨리 찬물에 행구지 않으면 면발의 찰기가 없다. 그래서 이 일들은 전문가적 기술을 가진 숙련자들이 맡는다. 행권진 국수는 그릇에 양을 맞추어 담기고, 성도가 수저를 들고 오면 따끈한 국물을 부어 낸다. 한편, 안쪽에서는 겨자씨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주방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합성 세제를 쓰지 않고 국수 삶은 물로 설거지를 한다. 맑은 물로 두 차례 행구기까지 다섯 단계를 거친다. 국수가 가장 맛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1부 예배 시작 전이다. 국물도 가장 진할뿐더러, 배식에 여유가 있으므로 면발을 국물에 담가 토렴을 하기 때문에, 국수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성도가 물리는 3부 예배 이후에는 토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다. 겨자씨 주방 봉사에 참여해서, 직접 땀 흘리며 설거지를 하거나 배식을 도운 다음에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밥상을 차리는 기쁨과 함께 먹는 국수의 맛이 말로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밥상에는 주님의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 식당에는 노숙자들도 와서 따뜻한 국수로 허기를 채우고, 마음에 평안을 안고 돌아간다.

우리가 긴 줄에 서서 한 그릇의 국수를 기다리는 이유

“봉사자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새벽조의 경우, 한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봉사자가 많으면 격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철 안수집사는 아울러, “겨자씨 봉사자들의 출석률이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힘들고 기술이 필요한 일은 고정 사역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겨자씨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일의 주방은 늘 긴장되고 숨 가쁘지만, 일사불란하게 돌아간다. 각자 맡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 봉사자들의 정성은 그대로 국수의 맛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주일마다 우리가 긴 줄에 서서 한 그릇의 국수를 기다리는 이유이다. <편집부>

▶ 교육부서

부서명	일정/장소	주제
하늘씨앗 (영아부)	7/8(주일) / 교회	세상을 환하게 반짝아이 씽씽 (마 5:16)
싹트네 (유아부)	7/21(토) ~ 22(주일) / 교회	세상을 환하게 반짝아이 씽씽(마 5:13-16)
담쟁이 (유치부)	7/28(토) ~ 29(주일) / 교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눅 15:7)
포도나무 (유년부)	7/29(주일) ~ 31(화) 경기도 안성시 너리굴 문화마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 (마 5:16, 16:16)
햇살뜨락 (초등부)	7/29(주일) ~ 31(화) 경기도 용인시 한터캠프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 (행 4:12)
아름드리 (소년부)	7/27(금) ~ 28(토) 강원도 원주시 원주청소년수련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롬 14:17)
팝콘트리 (중등부)	7/29(주일) ~ 31(화) 경기도 양평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온 맘 다해 (신 6:5)
비전트리 (고등부)	7/29(주일) ~ 31(화) 경기도 남양주 은행나무 연수원	성서로(路)
제 4차 미자립교회 청소년 초청 신앙수련회	7/26(목) ~ 28(토) / 교회	Action! 너는 가능성이다!
청년부	7/16(월) ~ 18(수) 설곡산 다일 공동체	아이.나.비 (I. 娜. Be)
청년부 국내 선교	8/1(수) ~ 8/4(토)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석향리 중동교회	사역: 집안 청소 및 보수, 의료봉사, 미용봉사, 발마사지, 마을 잔치 등
킹덤 영어 캠프	8/1(수) ~ 11(토) / 교회	킹덤 어린이 영어캠프

▶ 해외비전트립

선교국	일정	사역내용
케냐	7/21(토) ~ 7/30(월)	의료, 교육, 고아원 방문
코스타리카	7/13(금) ~ 7/21(토)	의료
키르기스스탄 (어와나 트랙)	7/31(화) ~ 8/7(화)	현지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캠프 참가 (주제: 구약 파노라마)
Z국 (청년부)	8/8(수) ~ 8/13(월)	기도 및 현지교회 지원
베트남 (청년부, 중고등부)	8/12(주일) ~ 8/17(금)	집짓기 사역 및 구제사역, 어린이 사역, 현지교회 지원 사역
헝가리	8/14(화) ~ 8/22(수)	의료, 교육, 위로

부르심의 큰 물줄기 _유성훈 목사

부르심의 길에 서서 _08

저는 청소년시기 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션스쿨인 영락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시절 제게는 좀 진지한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事有終始(사유종시)라고 끝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답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고등학교 때 희망하는 학과는 ‘철학과’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줄곧 철학연구반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신학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학교 내의 새벽예배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학교 목사님과 함께 했던 새벽예배는 저의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문득 고3을 보내며, 지금까지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대학을 다니던 내내 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내면의 소리가 저를 흔들어 놓고,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한 계기는 공동체의 검증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섬기던 대학부와, 대학 내 선교단체의 지체들이 풀타임 사역자로의 길을 중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저의 삶을 다른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제하고 있던 자매에게 저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했는데, 뜻밖에 자매는 저를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

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목회로의 결정에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안에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줄곧 준비시키셨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만남은 무척 중요합니다. 좋은 동료, 좋은 목회적 스승, 좋은 교회,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님의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좋은 동료와 좋은 목회적 스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도 청소년부터 장애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넓혀 주셨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위해 열심히 달리다보니, 저의 목회적인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녀들의 아픔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전반적 상황이 느리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미도 목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가정의 현실은 다른 동료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길을, 저는 한참이나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던 기간이었습니다.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신앙과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제게는 확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1-3절은 장애에 대해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이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신 저의 삶에 보내주셨고, 나아가 이들 교회에 필요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간다는 확신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지금까지의 저를 부르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의 큰 물줄기를 따라 좌우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땅끝 편지 _09

가혜야 사랑한다!

가혜가 손자 연호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문경으로 내려 간지가 며칠 지났다.

며칠 안 되었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옛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했든가? 우리 가혜는 특별히 어디가 예쁘다든가, 똑똑하다든가라기 보다는 심성이 착한데다, 모난데가 별로 없는 성격이 좋다. 그렇다고 못 생기거나 밍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한 집안에서 같이 살다보니 내 식구라는 생각이 더 와 닿는다. 딸을 하나 더 얻은 것 같아서 더욱 좋다.

특히 아들 달현이가 자기 일을 하다 몇 번 실패하고 놓고 있던 차에, 이를 알고 도 결혼해 준 며느리가 고맙고 기특하다. 노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할 마음을 먹었느냐니까 성실하고 장래성이 있어 보여 기도 중에 결정했단다. 요즘의 악삭 빠른 젊은이들과는 달리 성격적이나, 신앙적으로, 서로 맞아 결혼하게 되었다니 더욱더 대견한 생각이 든다.

한가지 자랑이라 생각하겠지만, 가혜는 요즘 여성들의 선택하는 직업중의 하나인 도 미술관 학예사(큐레이터)로 근무중이다. 요즘은 출산 휴가로 일년을 쉬고

있다. 빈 털터리 남편을 별로 싫은 내색없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보기에도 좋을 뿐더러, 한 집안에 같이 사는 하이 미스 시누이와도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도 나로서는 기쁘다. 더구나 시집온 지 일 년여 만에 건강하고 잘 생긴 우리 손자 연호를 선물로 안겨 주었으니 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들이 아직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 내가 며느리 눈치 보일 때가 더러 있다. 그렇지만 며느리 기도와 기대대로 잘 해결되리라 믿고 있다.

따라서 나는 가혜가 우리집 며느리로 들어온 것에 대해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은 재 작년에 분당우리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으니 하나님이 중매장이인 셈이다. 물론 결혼식은 박원호 목사님 주례로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운데 마쳤다. 우리 부부, 아들 부부, 고참인 딸, 백일 갖 지난 손자까지 한 집 안에서 알콩 달콩 살아가는 재미가 꽤 솔솔하다. 딸 같은 며느리를 선물로 주시고, 더하여 잘 생긴 우리 손자 연호를 보너스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가혜야 사랑한다!

〈시아버지 박규택 안수집사〉

2012년 함줄함울에서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어에 기초하여 땅끝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고백하고 치유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hamletter@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실어드리겠습니다. _편집자